

# 간호대학생의 간호역량 및 감성지능과 간호사 역할 이행의 관계

채현주

중부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Relationships between nursing competency and emotional intelligence and nurse role transition of nursing students

Hyun-Ju Chae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Joongb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역량 및 감성지능과 간호사 역할 이행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충남 소재 4년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4 학년 학생 134명이다. 자료수집은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8년 11월 1일에서 12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간호역량( $r=.79, p<.001$ )과 감성지능( $r=.59, p<.001$ )이 높을수록 간호사 역할 이행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역할 이행 영향 요인은 간호역량( $\beta=.66, p<.001$ )과 감성지능( $\beta=.22, p=.001$ ) 순이었으며, 설명력은 67.8%이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역할 이행 증가를 위해 간호역량 및 감성지능 증가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공된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 간호역량, 감성지능, 역할, 이행, 간호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nursing competency and emotional intelligence and nurse role transition of nursing students. Study participants were 134 nursing students of university in Chungnam province. Data were collected with the use of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from November 1 to December 10, 2018.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IBM SPSS 20.0 program. Nurse role transition of nursing students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nursing competency( $r=.79, p<.001$ ) and emotional intelligence( $r=.59, p<.001$ ). Factors influencing nurse role transition of nursing students were nursing competency( $\beta=.66, p<.001$ ) and emotional intelligence( $\beta=.22, p=.001$ ), which accounted 67.8%. These results indicate that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to increase nursing competency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nursing students are needed to increase nurse role transition. Studies on the effectiveness of provided programs are also needed to provide more effective programs.

Key Words : Nursing competency, Emotional intelligence, Role, Transition, Nursing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 Hyun-Ju Chae(hjchae@joongbu.ac.kr)

Received June 18, 2019

Accepted September 20, 2019

Revised July 20, 2019

Published September 28, 2019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이행(transition)은 한 상태나 조건에서 다른 상태나 조건으로 변화하는 과정 혹은 결과로[1],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위기(crisis)와 달리 중립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2]. 간호사 역할 이행은 간호대학생이 간호사로서의 교육적 준비를 마치고 건강관리팀의 일원으로서 간호전문직 문화 및 새로운 근무환경에 적응하고 사회화되는 과정이다[3]. 간호대학생이 간호사로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환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병원 조직의 원활한 인력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4]. 이에 간호교육기관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사로서 필요한 이론적 지식과 기술 및 태도의 습득 뿐 아니라 졸업 후 간호실무현장에 빠르게 적응하여 간호전문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 또한 목표로 하고 있다[5].

그러나 간호대학생에서 간호사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신규간호사는 이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3]. 신규간호사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에 대한 높은 기대와 스스로 지각하는 간호사로서의 역량의 차이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간호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6,7]. 이로 인해 많은 수의 간호사가 이 시기에 이직을 하거나 간호전문직을 완전히 떠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신규간호사의 70%에서 이직 이도가 있으며[8] 42.7%의 신규간호사가 실제로 이직을 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9].

이러한 신규간호사의 이직을 예방하고 병원에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 병원에서는 업무 체계 개편, 성격 분석을 통한 비슷한 성격의 프리셉터 맺어주기, 간호관리자와의 주기적인 면담과 같은 다양한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다[9]. 그러나 임상현장의 빠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론 교육과 관찰 중심의 실습교육으로 인해 실기 능력이 떨어지는 점도 신규간호사의 업무 적응력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10], 학교 교육에서도 간호사로서의 역할 이행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외의 경우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사 역할 이행을 도와주기 위해 프리셉터, 인턴십 및 멘토링과 같은 중재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역할 이행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1-15]. 그러나 국외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역할 이행을 위한

중재연구까지 시행된 것에 반해 국내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역할 이행과 관련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4,16].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역할 이행 정도 및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간호사 역할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졸업 후 1년 이내의 신규간호사 이직율이 2013년 29%에서 2017년 42.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9] 추세를 고려하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로의 성공적인 역할 이행을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4].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역할 이행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 역할 이행 정도를 파악하고 역할 이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간호사 역할 이행 정도 및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서[4,16], 2편 정도의 선행연구가 확인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역할 이행 관련 요인은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수행 불안, 이론수업 만족도,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및 성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4,16], 임상실습 만족도, 이론수업 만족도,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간호사 역할 이행 정도가 높았으며[4,16], 임상실습수행 불안이 낮을수록 간호사 역할 이행 정도가 높았고[4],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간호사 역할 이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6]. 그러나 간호사 역할에 대한 인지와 실제 간호사로서 수행하는 역할의 차이 및 간호술기 능력 부족과 같은 간호 역량 부족이 간호사로의 역할 이행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17], 간호 역량과 간호사 역할 이행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실시되지 않은 실정이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임상실습수행 불안이 낮을수록 간호사 역할 이행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4],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사 역할 이행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4,16], 임상실습수행 불안이나 임상실습만족도는 임상실습을 하면서 간호대학생 스스로가 인지한 본인의 간호사로서의 역량에 근거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인지한 간호역량과 간호사 역할 이행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간호사는 업무 특성상 환자의 관점을 이해하고 보호자 혹은 타 의료직종의 사람들과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대해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감성지능이 요구되므로[18], 감성지능 또한 간호사 역할 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도 실시되지 않은 실정이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대인관계 능력이 높을수록 간호사 역할 이행 정도가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는데[4,16], 이러한 대인관계 능력은 감성지능에 따른 차이에 의한 것일 수 있으므로 감성지능과 간호사 역할 이행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역량 및 감성지능과 간호사 역할 이행의 관계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역할 이행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및 간호역량과 간호사 역할 이행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역할 이행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간호역량 및 감성지능과 간호사 역할 이행의 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역할 이행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역량 및 감성지능과 간호사 역할 이행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남 소재 4년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135명의 학생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이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134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적정 표본수를 G-power 3.0 program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 중간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0, 예측변인 6으로 하였을 때,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표본수는 98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학생 13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

므로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 2.3 연구도구

### 2.3.1 간호역량

본 연구에서 간호역량은 Kim과 Nam[19]이 개발한 간호역량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간호역량 도구는 총 16문항으로 기술적 역량 2문항, 임상적 판단 4문항, 의사소통 4문항, 전문적 리더십 3문항, 전문직 실무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매우 부족' 1점부터 '매우 잘함' 4점까지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총점은 최저 16점에서 최고 64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과 Nam[1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2$ 이었다.

### 2.3.2 감성지능

본 연구에서 감성지능은 Wong과 Law[20]가 개발한 감성지능 측정 도구를 Jung[21]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감성지능 도구는 총 16문항으로 자신의 감정에 한 평가 4문항, 타인의 감정에 한 평가 4문항, 감정의 사용 4문항, 감정의 조절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7점까지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총점은 최저 16점에서 최고 112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Wong과 Law[2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9\sim.82$ 이었고, Jung[2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4$ 이었다.

### 2.3.3 간호사 역할 이행

본 연구에서 간호사 역할 이행은 Doody 등[22]이 개발한 도구를 Lee 등[4]이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간호사 역할 이행 도구는 역할준비 6문항, 역할역량 9문항, 조직과 지지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에서 조직과 지지 13문항은 간호학과 3,4학년 학생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적어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어 제외하였고, 역할준비와 역할역량의 1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조직과 지지 문항의 제외 및 조직과 지지 문항을 제외한 수정된 도구에 대해서는 간호학과 교수 2인 및 임상에 근무하면서 간호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을 지도

하는 간호사 2인으로부터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총점은 최저 15점에서 최고 60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 역할 이행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Doody 등[2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0$ 이었고, Lee 등[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2$ 이었다.

###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8년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기 전에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 작성은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기명으로 실시함을 설명하였다. 본 설문지의 결과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설명하였으며 연구 이외에는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자발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인한 이익이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와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작성한 설문지는 연구 참여 동의서와 함께 설문지 수거함에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와 설문지는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수거함에 넣도록 하여 연구 참여 동의서 및 설문지 작성 여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연구 참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발적인 연구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win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 2) 대상자의 간호역량, 감성지능, 간호사 역할 이행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역할 이행의 차이는 t-test와 one 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one way ANOVA의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 4) 대상자의 간호역량 및 감성지능과 간호사 역할 이행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간호사 역할 이행 영향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역할 이행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역할 이행 정도는 3학년이 4학년에 비해 높았고( $t=2.51, p=.013$ ), 간호학과가 적성에 맞아서 지원한 학생이 취업을 위해 간호학과에 지원한 학생보다 높았으며( $F=4.62, p=.004$ ), 간호학과가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적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t=-1.99, p=.049$ ). 성별, 종교, 전공만족도, 성적,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취업 후 희망 진로에 따른 간호사 역할 이행 정도에는 차이가 없었다(Table 1 참고).

Table 1. Nurse role transi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3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Nurse role transition (M±SD)
Grade	Junior	67(50.0)	49.75±6.04
	Senior	67(50.0)	47.30±5.22
	t(p)		2.51(.013)
Gender	Male	27(20.1)	50.26±6.56
	Female	107(79.9)	48.08±5.48
	t(p)		1.77(.079)
Religion	No	88(65.7)	48.51±5.81
	Yes	46(34.3)	48.54±5.72
	t(p)		-.03(.440)
Reason for application	Fit for aptitude <sup>a</sup>	59(44.0)	50.05±5.65
	For employment <sup>b</sup>	38(28.4)	46.39±4.87
	Recommendation	23(17.2)	46.91±5.81
	Others	14(10.4)	50.50±6.27
	F(p)		4.62(.004) <sup>a&gt;b</sup>
Aptitude match	No	31(23.1)	46.74±6.29
	Yes	103(76.7)	49.06±5.51
	t(p)		-1.99(.049)
Major satisfaction	Dissatisfied	21(15.7)	47.00±6.38
	Satisfied	113(84.3)	48.81±5.62
	t(p)		-1.32(.188)

Continued (Table 1)

Grade(average)	< 3.0	14(10.4)	47.14±5.75
	3.0 ~ 3.5	59(44.0)	48.34±6.12
	3.5 ~ 4.0	51(38.1)	48.73±5.36
	≥ 4.0	10(7.5)	50.50±5.74
	F(p)		.70(.555)
Perception about nurse	Generally bad	12(9.0)	48.75±6.82
	Generally good	122(91.0)	48.50±5.67
	t(p)		.14(.886)
Desired carrier	Hospital nurse	117(87.3)	48.29±5.68
	Others	17(12.7)	50.12±6.22
	t(p)		-1.23(.223)

### 3.2 간호역량, 감성지능, 간호사 역할 이행

간호대학생의 간호역량은 64점 만점에 52.08(±5.37)점이었고, 감성지능은 112점 만점에 90.02(±13.10)점이었으며, 간호사 역할 이행은 60점 만점에 48.52(±5.76)점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참고).

Table 2. Nursing competency, emotional intelligence and nurse role transition (N=134)

	Possible range	Min	Max	M±SD
Nursing competency	16~64	40	64	52.08±5.37
Emotional intelligence	16~112	55	112	90.02±13.10
Nurse role transition	15~60	36	60	48.52±5.76

### 3.3 간호역량 및 감성지능과 간호사 역할 이행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간호역량이 높을수록 간호사 역할 이행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r=.79, p<.001$ ),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간호사 역할 이행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r=.59, p<.001$ )(Table 3 참고).

Table 3. Correlation between nursing competency, emotional intelligence and nurse role transition (N=134)

	Nursing competency	Emotional intelligence
Nursing competency	1	
Emotional intelligence	.52 (<.001)	1
Nurse role transition	.79 (<.001)	.59 (<.001)

### 3.4 간호사 역할 이행 영향 요인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역할 이행 영향요인은 간호역량

( $\beta=.66, p<.001$ )과 감성지능( $\beta=.22, p=.001$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67.8%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참고).

Table 4. Factors affecting nurse role transition(N=134)

Variables	B	SE	$\beta$	t	p
Constant	5.53	4.06		1.36	.175
Grade-senior <sup>#</sup>	-.77	.59	-.07	-1.30	.196
Reason for application -fit for aptitude*	-.29	.63	-.03	-.455	.650
Aptitude match=yes <sup>§</sup>	.76	.73	.06	1.04	.300
Nursing competency	.70	.06	.66	11.04	<.001
Emotional intelligence	.09	.03	.22	3.55	.001
R=.823, R <sup>2</sup> =.678, Adj. R <sup>2</sup> =.665, F=53.89, p<.001, Durbin-Watson=1.642					

#reference: Junior, \*reference: Reason for application-others, §reference: Aptitude match-No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역량 및 감성지능과 간호사 역할 이행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역할 이행은 60점 만점에 48.52점(100점 만점 기준 80.87)으로 선행연구에서 140점 만점에 98.66점(100점 만점 기준 70.47점)으로 보고한 결과[16]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문항당 평균으로 보고한 연구에서 5점 만점에 3.34점(100점 만점 기준 66.8점)으로 보고한 결과[4]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의 일부를 제외하고 사용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및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역할 이행 정도는 100점 만점 기준 66.8~80.87점 정도로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역할 이행 정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역할 이행은 학년, 간호학과 지원 동기, 간호학과가 자신의 적성과 일치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역할 이행은 3학년 학생이 4학년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역할 이행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3학년 학생이 4학년 학생에 비해 간호사 역할 이행 정도가 높게 나타남을 보고한 선행연구[1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간호사

역할 이행은 간호대학생이 간호사로서의 교육적 준비를 마치고 간호전문직 문화 및 새로운 근무환경에 적응하고 사회화되는 과정이다[3]. 따라서 이론 교육 및 임상실습 교육을 더 많이 받은 4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에 비해 교육적 준비가 더 많이 되었다고 할 수 있고 간호사 역할 이행 정도 또한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및 선행연구에서는 4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에 비해 간호사 역할 이행 정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임상현장으로 인해 임상실습교육이 관찰 위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23]이라고 할 수 있다. 관찰 위주의 임상실습은 간호대학생이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을 임상현장에 적용하기 어렵게 하며 당혹감이나 혼란스러움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한다[23,24]. 이로 인해 임상실습을 더 많이 실시한 4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에 비해 임상실습을 통해 부정적 경험들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들이 간호사 역할 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임상실습 시 간호술기 적용의 어려움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역할 이행에 가장 큰 걸림돌인 현실 충격(reality shock)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7].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사로서의 역할 이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임상실습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멘토링을 보여줄 수 있는 임상실무교육자로서의 간호사 역할 확대가 요구되며[16], 학교에서는 학생들과의 임상실습 경험 공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부정적 경험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간호학과 지원 동기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역할 이행은 자신의 적성에 맞아서 간호학과를 지원한 학생이 취업을 위해 간호학과를 지원한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과 지원 동기에 따른 간호사 역할 이행에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선행연구[4]와 다른 양상의 결과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간호학과 지원 동기를 파악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 주요한 차이를 보인 적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와 선행연구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간호학과 지원 동기와 간호사 역할 이행에 대해 추후 계속적인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간호학과가 자신의 적성과 일치하는가에 따른 간호사 역할 이행은 간호학과가 자신의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간호학과가 자신의 적성과 일치하는지에 따른 간호사 역할 이행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 선행연

구와의 비교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간호학과가 적성에 맞아서 지원한 학생의 간호사 역할 이행이 높게 나타나 결과를 고려하면, 간호학과에 대한 적성 일치 정도가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역할 이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행의 개념에서 보면 간호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간호학과가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는 학생에 비해 간호대학생으로의 이행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간호사로 적응하고 사회화하는 과정인 간호사 역할 이행 정도에 있어서도 간호학과가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는 학생에 비해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에서 낮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간호학과에 대한 적성 일치 정도와 간호사 역할 이행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추후 계속적인 연구를 통한 근거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역할 이행은 간호역량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역할 이행과 간호역량에 대한 선행연구가 실시되지 않아 선행연구와의 직접적인 비교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역할 이행 관련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수행 불안이 낮을수록 간호사 역할 이행 정도가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는데[4],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간호역량 수준과 불안이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25]을 고려하면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역할 이행 정도는 간호역량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역할 이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역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간호역량은 일반적이며 분야에 관계없이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간호업무 수행하는 능력으로[26], 간호대학을 졸업한 신규간호사들이 지각하는 간호사 역할 이행의 판단 기준이다[27]. 이러한 간호역량은 간호교육을 통해 함양되며[28,29], 임상실습교육은 간호대학생이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고 경험하면서 총체적인 간호지식과 실무를 통합할 수 있는 간호역량을 기르게 한다[30].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임상실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환자권리와 안전이 강조되는 최근의 임상현장으로 인해 임상실습은 주로 관찰 위주로 이루어져 전문지식과 간호수행의 부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역할 이행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17]. 따라서 최근의 변화된 임상현상을 고려하여 임상실습교육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시뮬레이션 기반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간호역량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므로[31,32] 시뮬레이션 기반 실습교육의 강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역할 이행은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역할 이행 관련 선행연구에서 감성지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아 선행연구와의 비교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감성지능은 신규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의 간호수행과 관계가 있으며[33,34], 간호대학생의 인지된 간호역량[35] 및 간호전문직관[36]과 감성지능도 긍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간호사 역할 이행도 긍정적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간호사 역할 이행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감성지능은 대인 관계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간호사로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며[37,38],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낮추고 조직몰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므로[39,40], 간호교육에서부터 감성지능 증가를 위한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간호사 역할 이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역할 이행 영향요인은 간호역량과 감성지능 순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67.8%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역량은 간호사 역할 이행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역할 이행에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역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과 간호역량 수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육과정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며, 임상실습교육의 강화 및 부족한 임상실습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감성지능은 간호역량 다음으로 간호사 역할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증가를 위한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공된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및 간호역량과 간호사 역할 이행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간호역량과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간호사 역할 이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사 역할 이행 요인은 간호역량과 감성지능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역할 이행을 증가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함에 있어 간호대학생의 간호역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감성지능 증가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충남지역에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간호대학생 전체에게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를 통해 실증적인 근거자료를 구축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역할 이행 증가를 위해 간호역량 및 감성지능 증가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제공된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평가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1] K. L. Schumacher & A. I. Meleis. (1994). Transitions: A central concept in nursing. *Image-Th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6(2), 119-127.
- [2] N. K. Schlossberg, E. B. Waters & J. Goodman. (1995). *Counseling adults in transition* (2nd ed.).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3] C. Phillips, A. Kenny, A. Esterman & C. Smith. (2014). A secondary data analysis examining the needs of graduated nurse in their transition to a new role. *Nurse Education in Practice*, 14(2), 106-111. DOI : 10.1016/j.neor.2013.07.007
- [4] W. S. Lee, J. Y. Uhm & T. W. Lee. (2014). Role transition of senior year nursing students; Analysis of predictors for role transi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2), 187-194. DOI : 10.11111/jkana.2014.20.2.187
- [5] S. K. Lee, S. N. Park & S. H. Jeong. (2012). Nursing core competencies needed in the fields of nursing practice for graduate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8(4), 460-473. DOI : 10.11111/jkana.2012.18.4.460
- [6] J. E. Duchscher. (2009). Transition shock: The initial stage of role adaptation for newly graduated registered nurs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5(5),

- 1103-1113.  
DOI : 10.1111/j.1365-26482008.04898.x
- [7] Y. W. Shin, H. J. Lee & Y. J. Lim. (2010). Predictors of clinical competence in new graduat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6(1), 37-47.  
DOI : 10.11111/jkana.2010.16.1.37
- [8] H. M. Yun & J. S. Kim. (2012). An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turnover intention of new nurses. *Global Health & Nursing*, 2(2), 52-61.
- [9] Y. W. Park. (2019, May). Task for improving working environment and treatment of nurse. *Work status and tasks of Korean nurses*. (pp.69-80). Seoul : Hospital Nurse Association.
- [10] S. C. Song. (2018. 4. 29). New nurses turn over rate 38.6%...Fear of legal responsibility. *Doctor's News*.
- [11] P. Mellor & C. Gregoric. (2016). Ways of Being: Preparing nursing students for transition to professional practice.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in Nursing*, 47(7), 330-340.  
DOI : 10.3928/00220124-20160616-10
- [12] C. T. Kostovich & K. E. Thurn. (2013). Group mentoring: A story of transition for undergraduate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33(4), 413-418.  
DOI : 10.1016/j.nedt.2012.12.016
- [13] A. M. Kaihlanen, R. L. Lakanmaa & L. Salminen. (2013). The transition from nursing student to registered nurse: The mentor's possibilities to act as a supporter. *Nurse Education in Practice*, 13(5), 418-422.  
DOI : 10.1016/j.nepr.2013.01.001
- [14] R. A. Bridges, P. Holden-Huchton & M. L. Armstrong. (2013). Transition to nursing practice of accelerated second-degree baccalaureate students using clinical coaches.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in Nursing*, 44(5), 225-229.  
DOI : 10.3928/00220124-20130301-74
- [15] D. M. Haleem, W. Manetti, K. Evanina & R. Gallagher. (2011). A senior internship: Facilitating the transition to nursing practice. *Nurse Educator*, 36(5), 208-213.  
DOI : 10.1097/NNE.0b013e3182297cfc
- [16] S. H. Lee & S. H. Kim. (2017). The factors of role transition perceived by the nursing student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21), 405-420.  
DOI : 10.22251/jlcci.2017.17.21.405
- [17] N. Hoffart, A. Waddell & M. B. Young. (2011). A model of new nurse transition.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27(6), 334-343.  
DOI : 10.1016/j.profnurs.2011.04.011
- [18] K. S. Han, Y. J. Oh, S. J. Lee, S. K. Cha & H. C. Kang. (2009). Influencing factors on emotional competencies of nurs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17(1), 19-25.
- [19] E. J. Kim & K. A. Nam. (2016). Development and preliminary testing of nursing competence scale in simulation f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4), 549-558.  
DOI : 10.5977/jkasne.2016.22.4.549
- [20] C. S. Wong & K. S. Law. (2002).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13(3), 243-274.  
DOI : 10.1016/S1048-9843(02)00099-1
- [21] H. Y. Jung. (2006). *Effectiveness of emotional leadership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foodservice employees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contracted foodservice management company*. Doctoral dissertation. Seoul : Yonsei university.
- [22] O. Doody, D. Touhy & C. Deasy. (2012). Final-year student nurses' perceptions of role transition. *British Journal of Nursing*, 21(11), 684-688.  
DOI : 10.12968/bjon.2012.21.11.684
- [23] H. S. Shin & K. K. Shim. (2010).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n pediatric nursing simulation practic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6(2), 147-156.
- [24] M. S. Chung. (2009). The relations of self-esteem, practical performance and practical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1), 60-68.
- [25] J. Mozingo, S. Thomas & E. Brooks. (1995). Factors associated with perceived competency levels of graduating seniors in a baccalaureate nursing program. *Th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4(3), 115-122.
- [26]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2003). *An implementation models for the ICN framework of competencies for the generalist nurse*. Geneva;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 [27] A. C. Wolff, S. Regan, B. Pesut & J. Black. (2010). Ready for what? An exploration of the meaning of new graduate nurses' readiness for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7(1), Article 7.  
DOI : 10.2202/1548-923x.1827
- [28] J. K. Ko et al. (2013). Modeling of nursing competencies for competency-based curriculum developm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1), 87-96.  
DOI : 10.5977/jkasne.2013.19.1.87
- [29] G. E. Joo & K. Y. Sohng. (2014). Development of nursing competence scale for graduati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8(3), 590-604.  
DOI : 10.5932/JKPHN.2014.28.3.590
- [30] J. H. Park & S. K. Chung. (2015).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empathy, communication skill



- and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1), 7698-7707.  
DOI : 10.5762/KAIS.2015.16.11.7698
- [31] Y. M. Park. (2017). The effects of simulation-based practice on competence and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6), 1-7.  
DOI : 10.22156/CS4SMB.2017.7.6.001
- [32] D. H. Park & H. J. Kim. (2019). Effect of a simulation-based training on nursing students' knowledge, confidence, clinical competence and clinical competence on advanced cardiovascular life support.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1), 61-67.  
DOI : 10.22156/CS4SMB.2019.9.1.061
- [33] A. M. Beauvais, N. Brady, E. R. O'Shea & M. T. Griffin. (2011). Emotional intelligence and nursing performance among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31(4), 396-401.  
DOI : 10.1016/j.nedt.2010.07.013
- [34] O. S. Lee & M. J. Kim.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ew graduate nurses immediately after gradu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6), 307-315.  
DOI : 10.14400/JDC.2018.16.6.307
- [35] J. Por, L. Barriball, J. Fitzpatrick & J. Roberts. (2011). Emotional intelligence: Its relationship to stress, coping, well-being and professional performance in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31(8), 855-860.  
DOI : 10.1016/j.nedt.2010.12.023
- [36] K. O. Lee & H. J. Chae.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llege adjustmen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0), 355-365.  
DOI : 10.14400/JDC.2016.14.10.355
- [37] G. Benson, J. Ploeg & B. Brown. (2010). A cross-sectional study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30(1), 49-53.  
DOI : 10.1016/j.nedt.2009.06.006
- [38] K. M. Cox. (2018). Use of emotional intelligence to enhance 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ing competencies. *Th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57(11), 648-654.  
DOI : 10.3928/01484834-20181022-04
- [39] M. J. Song & S. Y. Choi. (2017). A convergence study about influence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job embeddedness on turnover intention in general hospital nurs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2), 83-89.  
DOI : 10.15207/JKCS.2017.8.2.083
- [40] J. O. Kwon & S. Y. Lim. (2017). The convergence study about influences of coaching behavior level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nurs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7), 63-73.  
DOI : 10.15207/JKCS.2017.8.7.063

채 현 주 (Hyun-Ju Chae)

[상위권]



- 2008년 9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중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여성건강, 성건강
- E-Mail : hjchae@joongbu.ac.kr